

보증-전이-실패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전이-실패론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 준 열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I. 보증전이warrant transmission-실패failure론에 대한 회의론 혐의

보증전이-실패론(이하, 전이-실패론)은 다음과 같은 논증이 전제에 대한 보증¹⁾을 전이시키는데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Z₁. 저것은 얼룩말이다.

Z₂. 저것이 얼룩말이라면, 저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가 아니다.

Z_c. 저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가 아니다.(이하, Z논증)

이상의 논증과 관련된 상황 중 하나는, 내가 실제로 어떤 사물을 눈으로 보고 그 사물에 대해 얼룩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일 것이다. 여기서 나는 내가 Z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판단할 것인데, 이때에 내가 Z₁에 대해 갖는 보증은 나의 시각적 지각이 될 것이다. 전이-실패론의 주장은, 비록 Z논증을 통하여 Z₁으로부터 Z_c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Z₁에 대한 시각적 보증이 Z_c에 대한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즉 이 논증 속에서 보증-전이(전제로부터 결론으로의)가 실패

1) 보증warrant를 정확히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을 위해서는, 보증을 정당화justification와 유사한 것으로 느슨하게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위의 논증이 바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이-제한 원리) 인식적 보증은, 비록 A로부터 B로의 연역적 함축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만약 B의 참이 인식자(knower)가 A를 믿을 수 있기 위한 사전조건(precondition)이라면, A로부터 B로 전이되지 못한다.(Martin Davies, 1998, p.353)

Z논증은 이러한 전이-제한 원리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논증처럼 보인다. 분명히 Zc(“저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가 아니다.”)의 참은 Z1(“저것은 얼룩말이다.”)을 믿기 위한 사전조건이다. 만약 전이-제한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Z1의 시각적 보증이 이 논증을 통해 결론으로 전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이-실패론의 주장에 대해 회의론의 혐의, 정확히 말해 회의론적 함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혐의가 종종 제기된다(Brown, 2004, pp.244-254 & Silins, 2005, p.79). 이 비판자들은, 전이-실패론의 주장에 따를 경우, Z1과 같은 명제의 참을 알기 위해서는 회의적 가설로 보이는 not-Zc(“저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이다.”)와 같은 명제들에 대해서도 반대 증거를 가져야만 하며, 이는 지나치게 강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나치게 강한 요구는 회의론적 함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이-실패론자들이 내세우는 전이-제한 원리는 분명히 그러한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비판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이-실패론은 대답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전이-실패론자들이 제시할 답변이 궁극적으로는 회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부터 충분히 도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전이-실패론과 같은 새로운 논의 틀과 논의 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의 주장이 참이라면, 본고가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질문, “전이-실패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의미 있는 질문으로 성립한다는 사실이 분명

해질 것이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사항들을 말해두고자 한다. 나는 i) 지식에 대한 어떠한 맥락주의contextualism 논제도 나의 논의 속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ii) 연역적 함축 하에서의 지식의 폐쇄성closure 문제 역시 본고의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II. 보증-전이와 관련된 회의론의 주장과 전이-실패론의 주장 사이의 유사성

아마도 전이-실패론에 대해 회의론의 혐의를 제기하는 비판자들에 대해 전이-실패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특정한 몇몇 논증들이 어떤 이유로 보증-전이에 실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즉, 전이-실패론은 실제로 지식을 위해 것처럼 강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이-실패가 일어나는 논증들의 기본 틀template(Wright, 2000, p.154)을 보여준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러한 논증의 틀이 굳이 전이-실패론을 통해 새롭게 주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회의론을 통해서 그러한 틀이 주어질 필요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아가의 Z논증(Z₁: 저것은 얼룩말이다. Z₂: 만약 저것이 얼룩말이라면 저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가 아니다. Z_c: 따라서 저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가 아니다.)을 다시 살펴보자²⁾.

먼저, Z논증에서 Z₁은 왜 Z_c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가? 이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얼룩말과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다른 물체는 서로 전혀 다른 사물이다. 따라서 Z₁이 참인 한,

2) 이를 살펴봄에 있어 폐쇄성과 관련된 논의가 개입될 것이지만, 1절에서 언급한 대로, 적어도 표면상으로도 폐쇄성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즉 저것이 얼룩말인 한, 그것은 조작된 다른 사물일 수 없다. 그리고 두 명제의 논리적 함축 관계에 대한 위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도 직관적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왜 Z_1 을 알면 Z_c 도 알아야 하는가?’

(직관적 답변) 만약 저것이 얼룩말이라면, 그것은 조작된 사물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저것이 얼룩말임을 안다면, 나는, 지금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저것이 조작된 사물일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알거나, 혹은 적어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저것이 얼룩말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인 명제 “저것은 얼룩말이다.”가 참이라면, “저것은 조작된 사물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정말로 “저것은 얼룩말이다.”가 나의 지식이라면, 나는 저것이 조작된 사물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식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 직관임은 확실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여기지는 것들에 대한 회의론의 공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만약 저 조작된 사물이 얼룩말과 완전히 흡사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없다고 해보자. 그 경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 사물이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위의 ‘직관적 답변’과 같은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내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한, 나는 저것이 얼룩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저것이 얼룩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상이 회의론이 주장하는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의론 주장은 보증전이와 연관된 버전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 변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회의론이 이미 전이-실패론의 핵심적 주장인 전이-제한 원리를 함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이-실패에 대한 별도의 정식화 없이도 충분히 Z 논증과 같은 것들이 문제시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실제 변환을 수행해 보도록 하자.

회의론에 따르면, Z 논증에서 Z_1 을 안다는 것은 곧 Z_c 를 안다는 것

을 함축한다. 따라서 어떤 것 x 가 정말로 $W(Z_1)$ ³⁾면, x 는 동시에 $W(Z_c)$ (즉, 회의론적 가설의 거짓이 참이라는 사실)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이 세계의 어떠한 x 도 $W(Z_c)$ 일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어떠한 x 도 $W(Z_c)$ 가 될 수 없으므로 어떠한 x 도 $W(Z_1)$ 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Z_1 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Z_1 을 보증해 줄 $W(Z_1)$ 이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Z 와 같은 논증을 회의론의 표적 논증으로 분류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원리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론-보증 원리) 임의의 연역 논증 X 에서, 임의의 x 가 $W(X)$ 의 결론일 때에만 $W(X)$ 의 전제일 수 있다면, X 는 회의론의 표적 논증이다.⁴⁾

이 회의론-보증 원리는 데이비스의 전이-제한 원리와 매우 유사하다. 데이비스의 전이-제한 원리를 여기 옮겨보도록 하자.

(전이-제한 원리) 인식적 보증은, 비록 A 로부터 B 로의 연역적 함축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만약 B 의 참이 인식자 $knower$ 가 A 를 믿을 수 있기 위한 사전-조건 $precondition$ 이라면, A 로부터 B 로 전이되지 못한다.(Martin Davies, 1998, p.353)

(번역) 임의의 연역 논증 X 에서, C 가 참일 때에만 x 가 $W(X)$ 의 전제일 수 있다면,⁵⁾ 그 연역 논증 X 는 보증의 전이에 실패한다.

- 3) 다음의 기호를 도입하도록 하자: $W(x)$ =명제 x 에 대한 보증.
- 4) 아마도 이러한 조건에 대해 무수한 반례(회의론 논증이 아니면서, 회의론-보증 원리의 전건을 만족시키는 연역논증)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반례를 열거하지 않고, 다음을 말해두고자 한다. ‘만약 이 조건이 반례를 가진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전이-제한 원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 5) 물론 인용문에 나오는 사전조건 $precondition$ 개념을 이처럼 필요조건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라이트(Wright, 2000, p.148)가 지적한 것처럼, 이것을 필요조건 개념 외에 무엇으로 해석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비록 라이트(같은 논문, p.155)가 사전조건을 단순한 필요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기본-틀

물론 양자 간에 차이점은 있다. 회의론-보증 원리는 x 가 W (논증 X 의 전제)이면서 동시에 $W(X$ 의 결론)일 것을 요구한다. 반면 전이-제한 원리는 임의의 x 가 반드시 $W(X$ 의 결론)의 역할까지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전이-제한 원리는, i) x 가 아닌 별도의 y 가 X 의 결론을 보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ii) x 가 논증 X 의 전제를 보증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나 X 의 결론을 보증해 주는 독립적 보증 y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x 가 혼자서 논증 X 의 전제를 보증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만약 논증 X 의 결론이 X 의 전제를 믿을 수 있기 위한 사전-조건이라면, X 의 결론을 보증해주는 y 가 X 의 전제를 알기 위한 보증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양자 간에 이러한 종류의 순환성이 없다면, 왜 X 의 결론의 참이 X 의 전제의 참을 알기 위해 요구되는지를 설명할 방법은 별로 마땅치 않은 것 같다(Silins, 2005, p.78).

비록 $W(X$ 의 전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W(X$ 의 결론)인 y 외에 별도의 x 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양자 사이에 그러한 순환성(X 의 전제를 알기 위해서는 X 의 결론을 알아야만 함)이 있다면, x 와 y 가 합쳐질 때에만 $W(X$ 의 전제)가 온전히 구성된다고 보아야지, x 만이 $W(X$ 의 전제)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주장대로 $W(X$ 의 전제)가 x 와 y 둘 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W(X$ 의 전제)는 분명히 그것이 $W(X$ 의 결론)이 될 때에만 진정한 $W(X$ 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이 제한 원리는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만 한다.

(전이 제한 원리의 수정) 임의의 연역 논증 X 에서, $W(X$ 의 전제)가 언제나 $W(X$ 의 결론)을 포함해야만 한다면,⁶⁾ 그 연역 논증

template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도 필요조건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 6) 물론 인용문에 나오는 사전조건precondition 개념을 이처럼 필요조건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라이트(Wright, 2000, p.148)가 지적한 것처럼, 이것을 필요조건 개념 외에 무엇으로 해석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비록 라이트(같은 논문, p.155)가 사전조건을 단순한 필요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기본-틀

X는 보증의 전이에 실패한다.

이렇게 보면, 회의론-보증 원리와 전이 제한 원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두 원리 모두, 어떤 것 x 가 $W(X$ 의 결론)일 경우에만, $W(X$ 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논증 X 가 보증 전이에 실패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원리가 나오게 된 근원 역시 동일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론은 분명히 회의론-보증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회의론이 이러한 전제를 생각하게 된 근원에는 아마도, 회의론의 기본적 생각, 즉 우리가 가진 어떠한 증거나 믿음도 Z_c 와 같은 회의적 가설이 거짓임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전이-실패론자들 역시 이와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은 자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들도 분명히 우리가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감각적 지각과 같은 것들이 $W(Z_c)$ 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자신들의 전이 제한 원리를 착안하였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비판자들이 전이-실패론에 대해 회의론의 혐의를 두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이-제한 원리로부터 전이-실패론자들이 회의론자라는 결론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다음 절에서는 논변의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이 회의론이 아님을 보일 것이다. 논의하면서 밝혀지겠지만, 그들의 주장이 회의론이 아니라고 해서, 곧 그들의 주장이 성공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Ⅲ. 전이-실패론과 회의론

사실 회의론-보증 원리와 같은 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의론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Z 논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template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도 필요조건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지지scaffolding 근거) 나는 $W(Z_c)$ 가 될 수 있을 만한 나의 선행적 근거들을 가진 상태에서 Z_1 을 믿는다. 즉, 나의 $W(Z_1)$ 은 나의 지각적 믿음과 나의 선행적 근거들을 합친 것이며, 따라서 나의 $W(Z_1)$ 은 $W(Z_c)$ 가 된다.

물론 이러한 식의 주장에 대해 누군가는, 만약 우리에게 애초부터 그러한 근거가 있었다면, 원래의 Z논증이 보증-전이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할 것이다(Silins, 2005, p.94). 그러나 나는 이러한 비판을 일단 접어두고자 한다. (a) 보증-전이에 실패하는 조건을 보이는 것과 (b) 실제적인 추론과정에서 보증-전이가 실패한 뒤에 우리가 가진 내적 정보들을 다시 고찰하여 새로운 근거를 찾아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b)의 과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지 근거를 생각해 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a)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이-실패론을 비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러한 지지하는 근거들에 대한 전이-실패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데이비스는 이러한 근거들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라이트(Wright, 2000, p.157)는 실제로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선행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해, 데이비스는 우리의 인식적 프로젝트project(여기에서는 저것이 얼룩말이라는 것을 알려는 프로젝트)에서는 그러한 것(‘회의론적 가설은 거짓이다’)의 참을 당연히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며(Davies, 1998, p.354), 반면 라이트는 단순히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이 참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양자 간의 차이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이 분명히 회의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오히려 회의론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회의론에 반대하는 근거로서 제시한 이러한 논의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지는 의문스럽다. 우리는 과연 라이트가 말한 그러한 선행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실린스(Silins, 2005, pp.92-93)가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한 선행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계에 동물이 하나 존재한다.’와 같은 명제에 대해서도 선험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Zc가 ‘저것은 얼룩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처럼 보인다. 물론 실린스의 주장 역시, 우리가 여기에서 피하고자 하는 폐쇄성의 논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이-실패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이 성공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확실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들이 회의론자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들은 전이-실패론과는 무관한 많은 논의들을 성공시켜야만 한다.’

IV. 딜레마

위로부터 본고가 묻고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본고의 궁극적 물음인 다음의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전이-실패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답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i) Z논증과 같은 논증이 회의론적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ii) (이미 위해서 언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Z논증과 같은 논증들이 보증-전이를 하지 못한다는 것, 즉 Z논증과 같은 논증들이 회의론의 표적 논증이 될 소지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답변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대답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이미 많은 비판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전이 실패론자들의 논의는 오히려 회의론의 혐의를 받을 만한 것이지, 회의론을 해결하는 전략은 아니다. 둘째,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전이-실패론은 그 자체로는 Z논증이 몰고 오는 회의론적 위협을 전혀 막아주지 못한다. 회의론을 막으려면 전이-실패론이 아닌 전혀 다른 논의들(‘지지 근거’와 같은)에 의존해야 하며, 그 논의들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두 번째 답변 방식은 첫 번째 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인다. 그러나 이미 밝혀져 있는 기준을 다시 정리했다는 점에서 별로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Z논증이 회의론의 표적 논증임은 자명하여, 그들이 그러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설혹 그 기준을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론은 이미 회의론-보증 원리를 자체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원리는 전이-실패론자들이 내세우는 전이-제한 원리와 완전히 동일한 것 같다. 따라서 보증-전이의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이 원리를 다시 서술할 긴절한 필요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컨대, 그들의 주장은 사소하다(trivial).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전이-실패론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답변 방식은 전이-실패론 자체만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묘사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답변 방식이 제시하는 내용은 회의론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바인 것 같다. 따라서, 전이-실패론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논의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이-실패론에 대한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나는 본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그러나 그다지 새로운 해석은 아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유효한지, 즉 이 해석이 제시하는 바가 전이-실패론의 필요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V. 회의론 반박의 길과 전이-실패론—버쥬Tyler Burge로부터

이 해석을 제시하기 이전에, 회의론 자체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회의론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 내기란 쉽지 않다. 여러 학자들⁷⁾이 이 방법을 고심했으나, 그 방법들이 얼마나 성공

7) 무어G.E.Moore로 대표되는 무어주의자Moorean, 노직Robert Nozick으로 대표되는 폐쇄성-거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분한 논의들이 있다. 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론은 확실하게 반박되지 않는가? 버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논문에 회의론에 대한 무장해제의 부담을 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모든 회의론에 대한 방어적 대응들이, 일부 초월적인(transcendental) 종류의 답변들을 제외한다면, “지각적 지식들은 [인식]가능-조건(enabling condition)들의 충족, 달리 말해 회의론의 실패-조건(defeating condition)의 충족 되어야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Burge, 1988, p.655 - ‘[]’ 표시는 필자)

물론 이것이 위에 던진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그 답을 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음과 같이 물어 보도록 하자: ‘왜 지각적 지식들은 그러한 정당화(회의론적 가설이 실패함, 즉 나의 인식적 상황이 정상적임에 대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왜 회의론에 대한 공격자들은 그러한 주장이 회의론에 대한 단순한 반대 주장임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동의하는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회의론자들(적어도 Z논증, 혹은 전능한 악신(evil demon)의 논증을 통해 지식 일반을 공격하려는 회의론자들은)은 지식에 대한 어떤 특정한 입장을 선취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 입장과 다른 입장에 설 수 있다.’ 여기에서 회의론이 선취한 어떤 특정한 입장이란 결국, 확실한 근거들을 통해 믿을 수 있어야만, 달리 말해 회의론 상황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근거들이 있어야만, 지식이 성립가능하다는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이 꼭 그러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 설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의론을 논박하는 것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 우리가 회의론과 대등한 입지를 마련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회의론이 지식에 대한 특정한 입장(“지식에 있어서의 완벽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입장을 선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식에 대한 특정한

입장(“지식에 있어서의 적당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입장)을 선취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비스에게 바로 이러한 입장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개의 제한 원리들의 뒤에 있는 직관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주어진 여러 인식-프로젝트들에서는, 어떤 명제가 전체로서의presuppositional 상태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프로젝트 P의 초점이 명제A에 있고, 그 탐구가 방법 N을 통해 달성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P안에서는 예컨대, A가 정합적으로coherently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며, N은 최소한 A에 대해 지식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B를 이 프로젝트 P안에서 전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명제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P는 그 자체로 B에 대한 지식을 성취할 수 없다. 또한 P는 B의 지식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본질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Davies, 1998, p.354)

위의 데이비스의 언급을 다음과 같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명제에 대해 지식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지식을 성취하기 위한 인식적 방법들과 몇몇 사전-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사전조건은 그 특정한 명제를 알기 위해서 참으로 가정되는 것들이고, 이 특정 명제에 대한 지식을 성취하는데 쓰이는 방법은 이 가정 하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인식적 방법은 이 가정의 참을 확인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통해 Z논증을 새롭게 해석하여 보자.

만약 우리가 Z논증과 연관된 상황을 하나의 인식적 프로젝트(이하 ZP)로 이해한다면, ZP의 인식적 목표는, ‘저것’에 의해서 지시되는 대상이 얼룩말임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인식적 방법은 시지각적 정보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인식적 방법은 분명히 어떠한 종류의 가정 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가정을 일반화하여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i) 저것은 지각적으로 얼룩말과 완전히 동일하게 보이도록 조작된 얼룩말 아닌 물체가 아니다. ii) 나의 지각과 관련된 기관들은 잘 기능하고 있다. iii) ...’ 우리는 이 가정들 중 하나가 Z논증의 결론(“저 얼룩말은 지각적

으로 얼룩말과 완전히 동일하게 보이도록 조작된 얼룩말 아닌 물체가 아니다.”)와 정확하게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만 ZP의 방법인 지각적 정보의 사용이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명백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Z논증을 토대로 하여, ZP의 목표인 ‘저것은 얼룩말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지각적 믿음이 지식이 될 수 없음을 밝히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 ZP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Z논증이 아닌 다음의 논증을 고려해야 한다.

- Z₁': 나의 감각 기관에 이상이 없고(C1) 저것이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물체가 아니며(C2), …(C3, C4…)라는 전제 하에서, 내가 저것이 얼룩말임을 시각으로써 확인한다면, 저것은 얼룩말이다.
 Z₂': Z₂'의 전제들(C1, C2, C3…)은 만족된다.
 Z₃': 나는 저것이 얼룩말임을 시각으로써 확인한다.
 Z_c': 저것은 얼룩말이다. (ZP-Z논증)

위의 논증에서 Z₂'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가정될 뿐이다. 만약 그러한 가정들이 참이라고 가정된다면, 저것이 얼룩말이라는 점은 논리적으로 따라 나온다(전건 긍정). 게다가 ZP-Z논증은 실제로 보증들을 전이시키는 논증인데, 왜냐하면 ZP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Z₂'은 당연하게 가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별다른 보증이 필요 없으며, 나의 시각적 경험은 Z₃'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Z논증은 이러한 ZP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Z논증은 ZP의 목표가 마치 ‘저것은 얼룩말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부당한 해석이다. ZP의 목표는 저것이 얼룩말임을 아는 것이지 Z논증의 Z_c를 아는 것이 아니다. 물론 Z논증과 같은 논증을 통해 회의론을 펼치려는 사람들은 결국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은 ZP의 가정, 즉 Z논증의 Z_c를 증명해 내지 못한다.’ 그러나 ZP-Z논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점을 충분히 인정할 것이

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부정한 적이 없다. 분명히 ZP에 있어서 W(Z₂)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ZP속에서 그러한 회의적 가설이 거짓임을, 달리 말하면 Z₂'의 참을 가정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ZP에서 취하는 인식적 방법, 즉 지각을 통한 인식이 Z₂'를 증명해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적어도 이상의 논의가 맞고, 데이비스가 전이-실패론을 적절하게 대변하고 있다면, 전이-실패론은, Z논증을 통해 회의론적 입장을 펼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고려해야 할 논증은 ZP-Z논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그 근본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버취가 언급했던 것과 같은 회의론에 대한 대응방식을, 일련의 추론문제inference problem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비스나 라이트의 논의가 지닌 의의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이-실패론의 필요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i) 전이-실패론을 통해서만 우리가 ZP-Z논증, 혹은 그와 유사한 아이디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전이-실패론자들은 자신들의 논의가 ZP-Z로 나아갈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대응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왜냐하면 ii) 그들 주장의 요지인 전이-제한 원리 자체는 분명히 ZP-Z와 같은 것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전이-제한 원리는 오히려 회의론이 제시하는 회의론-보증 원리에 더 가까운 것이며, 따라서 회의론과 동일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납득하기 쉬운 해석이다. 그리고 이미 2절의 후반에 언급한 것처럼, 이 회의론적 아이디어는 ZP-Z논증과 같은 반 회의론적 아이디어와 어떠한 연관성도 가지지 않는다. 물론 데이비스 자신은 전이-제한 원리가 ZP-Z와 같은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양자가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 데이비스는 아마도 그 관계가 자명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실상 양자 간의 관계는 좀 더 많은 탐구를 요한다.

만약 그러한 탐구가 없다면, 오히려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회의론적 아이디어에 기반하면서 동시에 ZP-Z논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이-실패론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비-일관적이다.’ 만약 전이-실패론이 이러한 결론을 물고 오게 된다면, 이는 전이-실패에 대한 언급 없이 ZP-Z논증을 구성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는 셈이 된다. 따라서 전이-실패론자들은 전이-실패론의 어떠한 요소가 ZP-Z의 가능성을 숨겨놓고 있는지, 다시 말해 전이-실패론을 거침으로써 ZP-Z논증의 필요성이 명확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줄 논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하고 설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전이-실패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VI. 결론

이제 이상의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전이-실패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회의론의 기본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회의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일 수 없다. 그 목적을 회의론적 논증을 식별해 내기 위한 기본-틀의 제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회의론이 제시하고 있는 바에 대한 재정립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의 가능한 방안은 전이-실패론자들의 근본-목표를 다소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전이-실패론의 유효성을 역으로 추적 하는 것이지만, 이미 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시도 역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데이비스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이-실패론자들의 목표는 우리가 지식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견지해야지만 회의론에 대해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논의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이-제한 원리가 그러한 입장에 대

한 함축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이 관계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위의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Crispin Wright(2000), “Cogency and Question-Begging”, <Philosophical Issue> Vol.10, pp.140-163.
- Jessica Brown(2004), <Anti-individualism and Knowledge>, MIT press.
- Martin Davies(1998), “Externalism, Architecturalism, and Epistemic Warrant”, In Wright, Smith, and MacDonald, pp.321-361.
- Nicholas Silins(2005), “Transmission Failure Failure”, <Philosophical Studies>, vol.126: pp.71-102.
- Tyler Burge(1988), “Individualism and Self-Knowledge”,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85, pp.649-663.